

이번성탄절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지옥에갈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고 성탄 전도집회를 가졌습니다. 약140여명의 사람들이 전도집회에 왔고 전도집회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산골 속의 작은 교회가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선물을 드릴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메산골 교회에는 신타크로스도 아기 예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있을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 줄수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가슴에는 예수님 한분만 마음에 가득차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이 땅위에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더욱 힘써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달려 가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함께 준비하시는 축복의 성탄과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메산골에서 보냅니다.

- 최OO 선교사

최근 중국 소식

코로나 19로 여전히 전 세계가 어수선하지만 와중에도 이곳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불철주야 내달립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처처의 감시카메라들로 대면모임이 용이치 않은데, 3월부터 발효되는 온라인 통제법은 아예 손발을 묶으려 합니다. 하지만 일꾼은 달립니다.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께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을 구합니다.

열공의 이유

좋은 직장 잡아야 집 있고 차도 있어야 비로소 결혼 대상을 맞이할 자격이 생깁니다. 소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열망을 성취하지 못한 술한 젊은이들이 생을 포기합니다.

지난 달 긴급요청한 상황은 손을 모으며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중입니다. 갖가지 제약과 통제로 이미 수많은 사망자들이 부재한 가운데 현장을 지키며 방법을 모색하여 한 걸음 씩 내딛는 와중인데, 3월부터 모든 온라인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최근 발표가 이곳 가족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저 위를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합니다. 그분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제목>

1. 유스D 스쿨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지켜 보호하시기를.
2. 영어현지어 D훈련의 온오프 모임을 지켜 주시기를.
3. 저의안전과 1-2 월 한국행귀국길을 순탄케하시기를.

- 조OO & 윤OO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척장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팔 이에신 선교사- 유방암이 간과 머리에 전이 되었다고 간 수치를 좀 올리고 항암치료중에 1월 11일 암이 많이 전이가 되어서 다시 예수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소견에 많이 위급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 기도해주세요.
3. 터키 양창호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골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6. 강명철 선교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 할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7. 이지향선교사- 척추 협착증과 발 족저근막염이 치유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8. 페루 박윤수 선교사- 황반변성 (실명질환 중 하나) 수술차 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수술과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온전히 회복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9.유의경선교사-지난 주일 오후 유의경 선교사님께서 각혈을 많이 하셔서 ER(응급실)에 입원하셨다가 ICU(집중치료실) 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폐와 심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인도 김바울 선교사-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였는데 조금 심한 것 같아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기침과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증증으로 가지 말고 온전히 다시 잘 회복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파라과이 김돈수 선교사-선교사님과 온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2년 1월 16일

선교사 현황

57개국 325명

자체파송 73%

브라질 AFA 통해서 받은 은혜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곳 브라질은 한 달이 넘게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AFA를 해야 하는 우리는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당일 첫날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캔디들을 맞이하며 마음에는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도 잘 서고 다음 날에는 모든 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햇빛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다 마치기까지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다음날부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펜데믹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AFA를 감당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은혜를 사모하는 팀멤버들과 캔디들이 모여와서 아름다운 AFA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시험이 먼저 찾아오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FA는 찬양이 중요한데 찬양 리더가 못 오겠다고 몇일전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서 인지 캔디들을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팀멤버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어느 한 곳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AFA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곳 브라질에는 코로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제도 없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대통령이 신앙생활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독려하고 있습니다. 캔디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는데 78세의 할머니가 AFA의 프로그램을 따라 다니며 아픈 다리가 낫았다고 간증을 하였고, 다음 주에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내외가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고 간증을 했으며 그곳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그들 내외를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 많은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AFA를 감당 할 때 마다 겁이 납니다. 어디에서 캔디가 올까? 팀멤버들은 시간을 낼수 있을까? 하며 시작 합니다. 그냥 기도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은혜 한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인승 & 한선희 선교사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주님의 이름으로 네팔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이 눈감작할 사이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것 같았던 한해 동안 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의 예배는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도 멈추지 않고 드려졌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최근 새롭게 발견된 오미크론등의 변이 바이러스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외부의 도움없이도 헤며우라 개르라고교회와 시꺼뽈 비손교회는 작은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자신의 땅과 살던 집을 교회를 위해 내 놓았습니다. 한빛학교 역시 개교이후 1년만에 맞이한 락다운과 장기간의 휴교령 속에서도 비디오 수업과 소그룹 방문교육을 실시하며 올해 3학년 학생모집까지 전교생 110여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정상적인 대면수업으로 건강하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햇띠슈레 비손교회 역시 항상 지속 되어왔던 거헬루성거띠(가정예배)로 마을마을 마다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작물들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농창업에도 도움을 주어 한국품종 고구마 파종하고 고수익이 가능한 뽕나무와 모링가나무 아보카도, 히비스커스, 결명자 생산에 집중하며 첫 결실로 이 지역 특산물인 생강과 결명자 판매를 돕게 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고 판매하면서 얻게된 이익을 교회에 헌금하고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스쿠터 타고 집에 돌아오는길에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앞으로 꼬꾸라지며 넘어져 좀 다쳤는데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과 인대가 놀라고 뻐 정도였고 지금은 다 회복되고 나았습니다. 스쿠터는 비바람 막을수 없고 물품 구입후 보관도 어렵고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지는데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사고처리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라도 구입하려 기도했는데 한국의 한 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와 후원해 주시며 정말 저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힘과 위로 격려를 얻었습니다.

차량구입과 장시체류를 위한 비자연장을 위해서는 투자비도 한국에서 제 명의 통장에서 본인만이 직접 해외 송금 가능하다하여 한국에 급히 12월22일에 나가게 됩니다. 작년에 수술 받았던 곳도 재검하고 여러가지 업무들을 해결하고 2월14일에 다시 네팔에 돌아오려합니다. 네팔에 남겨두고 가는 모든 사역들과 동역자들 모두 지켜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불일 다 잘 보고 안전히 지내다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려요. 또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햇띠슈레 동역자 선제이 며혈전 선생님이 결혼 5년만에 드디어 부인이 임신하게 된것과 주일학교 담당자 머니사 선생님도 올해 3월 결혼이후 6개월만에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선제이 선생님 부인 서리따는 몸이 좋지 않아 임신초기 몇번의 유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엔 잘 고비를 넘겨 4개월에 접어들고 안정이 되어갑니다. 두 가정의 태아가 건강하고 아무 탈없이 잘 자라고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려요. 항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박OO 선교사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다(출33:18,19). 피조물이기에 창조주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 영광을 표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다만 이 땅위에 드러나는 영광의 속성들을 통하여 어렵듯이 알 수 있는 것이다(롬1:20). 모세에게 연기와 불로 임하신 하나님, 시내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 속에 임하신 영광, 솔로몬 성전에 충만했던 영광, 영광이 떠나고 심판이 시작되었던 일(겔7,8장),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보이심(요1:14,17:22,24)과 같이 그 영광을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현현하는 여러 모습들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존 파이퍼는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을 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야 하는 나이기에 매우 당연한 물음이다. 영광의 임재안에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요17:22). 우리에게는 철저한 순종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주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임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며 성전이다(고전6:15,3:16). 고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해 있어야 하고 그 영광을 발하여야 한다. 이리 되도록 우리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음으로(갈2:20)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주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라고 하셨다(사43:7). 창조하신 목적이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런 속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모로 말할 수 있으나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로 복음으로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이루지고 확장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요17:4)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임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질그릇과도 같다(고후4:7).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다(롬3:23).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 깨졌음을 뜻한다. 토기장이 하나님(사64:8)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깨어진 질그릇들을 붙이시게 하시고 때워 영광의 복음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올리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요1:9,14).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온 땅이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며(사6: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고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겠다(롬5:1-11,고후3:18).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함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에게 임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과 순종의 삶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셨다. 예수님을 닮아야하는 우리도 그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철저한 순종과 사랑을 행하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롬8:18) 주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눅9:23), 주를 따르는 것이다. 이리될 때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눅9:23,고후4:17) 이 영광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자기부인과 거룩한, 성결한, 정직한 삶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어 내게 임한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육과 야망을 위함이나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지금 해야 할 우리의 일이다.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영광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쉬운 일도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얻어지는 소중한 영광이다(빌1:11).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소유치도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죄와 악이다(롬3:23). 얼마나 이것들이 무서운지 깨달아야 한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고 진실과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위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고전10:31)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엡1:7-14),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롬5:1-11)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야만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양심을 파는 자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사43:1-7)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임한 자답게 이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이어야 한다. 영광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러 주님이 주시는 의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

- 김대규 장로

그동안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르는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잘 계실줄 믿습니다! 평생영주권 주소등록은 교회에 사는 이유로 여러번 취소를 당했으나 잘 되었고 여권 등록은 영주권과 연결되어 쉽게 등록을 했습니다! 러시아비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리 크라스노다르시 은혜사랑교회로 이동해야 하는데 빠또이스트로이까 알콜마약중독자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소방법 위반문제(알콜마약 중독자 교회 리더 관리자 한사람의 실수)로 다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되어서 10명 정도는 아예 떠나버렸고, 12명은 아무르소망교회 예배당 방으로 이사와서 같이 살고있고, 6명 정도는 빠또이스트로이까 창고같은 사우나 건물에서 장작을 때면서 살고 있고, 3~4명은 다른 곳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하루3번씩 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크라스노다르 은혜사랑교회로 가는데 아마 10일 후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콜마약 중독자 성도들을 잠시나마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무르소망교회 할머니 성도들이 5명이 돌아가셨고 남편이 2명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성도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에는 복음과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가족의 죽음 앞에서 더 마음문을 열고 잘 듣고 은혜받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치료한 후에 건강이 매우 나빠졌지만 이제 건강이 90% 이상 회복 된 것 같습니다. 호흡기뿐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전에는 한 계단씩 올라가도 숨이 가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두계단씩 올라가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무릎도 약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를 못해서 ‘무릎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단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도 되었고, 많은 기도후원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되었고, 잘 먹도록 도움 받은 것도 큰 힘이 되었고, 아무르 소망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러 아무르소망교회의 건물이 너무 낡아져서 창문을 바꾸고 난방 시설을 새롭게하여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수리를 행하였습니다! 요즘 눈도 많이 왔고 영하15도에서 25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 수가 너무 적어서 코로나가 급속하게 번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으며, 대형마트 상점 식당에는 백신을 두번 맞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타지 못하고, 이제는 시내버스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타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다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명과 영혼육 강건을 위해서 계속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은성식 & 김경희 선교사

터키 소식과 기도제목

저희 가정과 이스탄불 평강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 입어 열심히 치료 받고 회복하여 터키로 돌아가 사역하는 날을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이루시는 2022년이 되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새해 기도 제목과 앞으로 사역에 대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이해영 선교사 암 - 치료 말기 유방암이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암이 줄어들고, 회복되고 있는 기적의 삶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은 “전이된 암이 줄어드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 말하지만,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해영 선교사를 치유하시고 터키로 돌아가 터키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섬길 것이라 믿습니다.

2) 서울은혜교회 사역 - 9월부터 이해영 선생님의 건강이 호전되어, 터키 선교지로 돌아가기 전까지 저는 서울은혜교회에서 목회/선교 담당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충성된 종으로 섬기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3) 터키인 제자 양육 - 이상민 형제 / 에브루 자매 가정을 매주 토요일 방문하여, 에브루 자매와 이해영 선생님이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가정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에브루 가정이 터키로 돌아가 저희 가정과 함께 터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동역자가 되기 위해 교제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스탄불 평강교회 - 지난해 8월 터키를 방문하여 ‘다윗 군듀’ 형제를 만나 많은 시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 군듀즈 형제를 청년 리더로 세워, 청년 및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형제를 터키의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로 양육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식과 기도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평강교회를 이끌고 있는 문경희 선교사님과 성도들, 특히 저희 가정이 양육하였던 청년 &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1) 이해영 선생님의 암이 치료되길 기도합니다.
- 2) 저희 가정이 빠른 시간안에 터키로 돌아가 청년들과 청소년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 터키 교회 리더로 세우길 기도합니다.
- 3) 현재 맡겨진 서울은혜교회와 터키인 제자 양육, 평강교회 청년들 사역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이스탄불 평강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이 저희 가정이 없는 시간 동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인 다윗 군듀즈 형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최OO & 이OO 선교사

여호와께 감사 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 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06:1)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안부와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선교사 훈련원 8기 출신으로 2016년 부터 멕시코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부터 Cacauanache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
이 지역은 멕시코 시티에서 아카풀코 방향으로 5시간 걸리는 작고 열악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부부와 멕시코 현지인 목사 6명 그리고 40여명의 스템들과 함께 전도 집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4시간동안 찬양과 2번의 설교, 어린아이들을 위한 복음전도, 선물증증, 집회자들을 위해 식사대접등 그곳이 예수님께서서 초청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복음 선포 중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치유가 일어났고 또한 정성을 다해 섬겨준 봉사자들도 섬기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개최 하게된 배경은 멕시코 시티 근교 지역 의 몇몇 교회를 저희들이 4년 전 부터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하여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펜데믹 기간중, 대부분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거의 사망직전에 갔다가 살아나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뜻을 찾으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펜데믹으로 사역이 멈추어버린 가운데 추수할 곡식을 사탄에서 빼앗기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전도,영혼구원에 대하여 코로나로 두려워 말고 그일들을 감당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그들과 함께 깊은 산에 가서 산장에서 1박 2일동안 함께 기도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천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29일 제 2차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신 생명,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기도제목>

1. 멕시코 시티 전도집회 (1월 29일) 돌루까 지역 전도 집회를 통해 주님이 예비 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 올수 있도록.
2. 모든 팀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 전할수 있도록.
3. 사탄의 공격, 방해로 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4. 성령충만과 권능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 할수 있도록.

- 송두선 & 양정연 선교사

방글라데쉬 선교소식

시시각각으로 격변하는 무서운 세상에 사는 것 같은데 세월을 잊은듯 올해도 성탄연극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이 메시지가 들렸는지- ? 즐겁게 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수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해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으라 하신걸까요? 뭔지 모르지만 어느사이 우리의 가슴엔 믿음으로 감격의 감사가 있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비눗뿔 사역지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9년시작 할때 동네 학교처마 밑에서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학교가 수업을 못하게 되서 주일학교는 오히려 교실사용허가 부탁해서 겨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카톨릭 사역하던 건물놓고 떠난 곳에 들어갈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카톨릭이 사역마치고 2019년 떠나버린 곳입니다. 우리사역자를 보내서 살피고 왔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학교와 교회가 필요한 곳입니다. 무학칼리 교회 입니다. 아칼리아 학교와 교회 입니다.

- 곽OO & 김OO 선교사



2021년을 보내며~~
코로나와 함께 2021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원칙이 깨지는
황당함에...그럴수도 있음을 배웁니다. 수고가 무시되는 허탈함에...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함을 훈련받습니다. 위기 속 수많은 정보들의
불안속에...말씀안에서 안심하는 여유로움을 누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학교와 교회와 저희 개인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로 채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 김나지아 그레이스 학교

코로나 상황에 잘 대처하는 학교로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서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입학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직원들도 세워 주셔서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속에서도 정상 수업을 할 수 있었고
12월25일부터 1월9일 까지 겨울 방학을 합니다.

유치원도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서 입학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입학 할 수 있기 위해 건물 건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혜교회 (러시아 현지인교회)

현지인 제자 목사님인 블라지미르 목사님께 담임목사직을 위임 하였습니다.
블라지미르 목사님은 담임목사 위임 후 40일 금식기도와,
20일 주스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구소련 10000 개 교회 개척을 위해 구소련 교회들이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1000개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자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카운터, 일대일 사역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TD 는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되었는데 내년 5월 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나지아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신앙을 위해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3.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혜한인교회

많은 한인들이 한국으로 귀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심을 믿고
매주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4. 가족

조경호 선교사는 감마나이프 수술을 통해 뇌종양 제거 수술을 잘 하였고,
지금은 후유증 없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 주셨습니다.
올 해 딸 현아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갖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제목>

- 1) 훌륭한 제자 목사님들이 세워져서 학교와 교회 사역을 위임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교회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더 든든히 커질 수 있도록
현지 제자들은 앞장서서 담대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뒤에서 이 비전을
이룰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 2) 러시아 땅에 1000개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 3) 유치원 건축 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 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 4)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 5) 학교 교직원들과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선교지를 품고 기도해 주시는 한기홍 목사님과 선교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조경호 & 조명숙 선교사



살롱~! ^^

제가 몰도바로 돌아온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 11월 말에 무사히 거주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몰도바도 지금 한국과 같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몰도바에 드디어 첫 눈이 내렸고,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

1. 거주증 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장기 거주를 위한 비자 발급을 받은 이후, 진행된 서류 접수가 잘 처리되어 11월 말에 거주증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 문제가 많을 것을 염려했던 차량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많은 부품들과 오일을 교체하면서 수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며칠 전 차량 등록을 신청하였고, 곧 차량 등록이 완료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도바 소식)

몰도바는 현재 확진자 372,429명, 사망자 9,521명 입니다. 코로나로 매일 2~30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백신 접종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같이 백신패스를 적용하여 실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입장을 시키는 등, 나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건물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몰도바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소식)

저는 사용할 언어인 루마니아어와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지며, OM 팀 멤버들과 교제하며 OM과 몰도바의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배우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는 있지만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함을 느끼며 꾸준히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얼마 전인 12월 초부터 약 2주간 몰도바의 시골 마을에서 언어 훈련과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시골살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아닌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머문 숙소는 젊은 부부가 남자 아이 3명과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난방 시스템은 한국의 아궁이와 비슷해보이는 벽난로 시스템을 이용한 난방을 하고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친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시스템이지만, 제가 있는 몰도바는 벽을 통해 열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나름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주셔서 매 식사가 풍성한 식탁이었으며,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훈련를 통하여 잊고 있었던 단어들에 대한 기억과 사용법을 알게 되었으며, 조금 더 친숙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어와 루마니아어가 혼재되면서 머리가 복잡해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함을
확인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소로카(Soroca)라는 지역에 방문하여 1주일 전후의 시간을 지내면서 사역을 하게 될 지역에 대해 알아보면서 살아가야할
지역에 대한 공부와 앞으로 하게 될 사역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기 전 주님께 묻고 듣는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언어(영어, 루마니아어)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보다 더 잘 소통하고 교제하며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4. 좋은 동역자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5. 부족한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6. 코로나로부터 저와 Team 그리고 몰도바(Moldova)를 보호해 주시기를.
7. 신학(M.div)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 정석영 선교사